

코로나 시국 관광수입 ‘반 토막’

제주연구원 연도별 관광수입 비교 분석

2019년 7조3660억→2020년 3조9830억
외국인 관광시장 수입은 80% 이상 급락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수입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관광객 수입은 80% 이상 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2020년 관광수입을 추계한 결과 총 3조983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9년 관광수입 7조3660억원과 비교해 45.9% 감소한 규모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2월 제주 무사증 중단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내국인 관광객 역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지역감염 대유행 영향

을 받아 감소하면서 제주관광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적 별로 보면 내국인 관광수입의 경우 2019년 4조4050억원에서 2020년 3조4740억원으로 21.1% 줄었다. 외국인 관광수입은 2019년 2조9610억원에서 2020년 5090억원으로 82.8%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업종 별 관광수입은 소매업이 1조6500억원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했고, 이어 숙박업 5950억원(14.9%), 음식점업 7540억원(18.9%), 운수업 3960억원(9.9%), 예술·스포츠·여가업 3000억원(7.5%), 기타업 2880억원(7.2%) 순

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주 관광수입 가운데 외국인 면세점과 카지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2020년의 경우, 제주 전체 관광수입 3조9830억원 중 외국인 면세점과 카지노를 제외하면 3조5280억원으로 11.4% 감소했다. 2019년에는 외국인 관광수입에서 외국인 면세점과 카지노를 빼면 4010억원으로 86.5% 줄어든다.

한편 코로나19 여파 속 지난해 제주방문 관광객(잠정)은 1200만명을 돌파했다. 2021년 총 관광객은 1201만 4000명으로 전년 1023만 6000명 대비 17.4% 증가했다.

제주 관광수입은 해당연도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신용카드 통계자료 등 기초자료에 근거한 생산집근법으로 추계하고 있다. 강다영기자



설국에서 ‘찰칵’ 눈이 내린 5일 제주시 용강동 마방목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5일째 감감 무소식… 내 택배 언제쯤”

CJ대한통운 노조 총파업… 제주 11개 지역에서 배송 차질

“새해 첫날 온라인을 통해 고민고민하다 구매한 의류를 5일째 받지 못했어요.”

도민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매했다. 하지만 평소 같았으면 이미 상품을 받았을 기간이지만, 5일 낮 배송 상태를 확인해보니 상품이 여전히 대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10여분 넘게 연결을 대기해도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었고, 고르고 골라 구매한 상품이 제주에 오지 못하고 대전지역에 묶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답답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A씨는 “판매업자로부터 택배사의 파업에 따라 배송 지연 가능성을 안내 받았지만, 여러 쇼핑몰을 비교하며 새해 첫날 큰맘 먹고 구

매한 상품의 배송이 평소보다 지연돼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총파업이 9일째 접어들면서 제주지역에서도 택배 물량의 배송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CJ대한통운 기사 2만여명 중 재의권이 있는 노동조합원 17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12명(제주시 9명·서귀포시 3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에 도내에서는 제주시 도련2동, 도련1동, 삼양2동, 삼양1동, 이도1동, 이도2동, 일도2동, 화북2동, 화북1동 등 9개 지역,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등 2개 지역 등 총 11개 지역에서 CJ대한통운의 택배 접수와 배송이 중단된 상태다.

도내서는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 택배 지연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택배 물량이 많아지는 설 명절을 앞둔 파업이 지속될 경우 택배 배송 차질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 기사들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 수수료 배분 방식에 따라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이 이미 택배기사들에 수수료로 배분된다고 오히려 택배노조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태윤기자

■ 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 브리핑

“백신접종 독려… 새 학기 ‘정상등교’ 목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 “판결과 관계없이 학생, 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를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실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방안은 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3월 새 학기 ‘정상등교’를 목표로 학교활동 재개 노력 및 교육회복에도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쓰던 ‘전면등교’는 등교 비율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 대신 ‘정상등교’라는 말을 사용해 교과 과정, 비교과 활동, 체험활동 운영 등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이틀 연속 상풍이 사체 발견

제주 해안서 이틀 연속 해양보호생물인 상풍이가 죽은 채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림읍과 한경면에서 해양보호생물 상풍이 사체를 발견했으며, 불법 포획 흔적은 없어 해당 지자체에 인계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49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

포구 인근 갯바위에 상풍이가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림파출소 순찰팀이 현장 확인한 결과 길이 80cm, 둘레 50cm, 무게 약 25kg의 상풍이 사체를 발견했으며 부패가 심해 암수 구분과 사후 결과는 파악하지 못했다.

또 5일 낮 12시48분쯤에도 제주시 한경면 한경해안로 인근 갯바위에서 상풍이 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출동했다. 김도영기자

“민주당 책임있게 나서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2명

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숨지면서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화주와 택배사, 소비자들과 택배 노동자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그 결과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작업 배제, 표준계약서 제정, 택배요금 인상 등이 합의됐지만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

의를 불이행하고 있고 정부여당인 민주당은 CJ대한통운의 갑질과 탐욕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이행의 당사자이며 택배 현장의 절대 갑인 택배사들의 행태를 견제하고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영기자

2022년 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택시사업자 일당은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 사장	
전국택시공제조합				강성지	
제주지부				지부장	
조흥자동차(주) 대표이사	부행군	현대자동차운수(주) 대표이사	김병희	우진운수(주) 대표이사	윤달웅
한영운수(주) 대표이사	김부자	(주)중앙교통 대표이사	김근형	영일운수(주) 대표이사	신관일
(주)신흥운수 대표이사	김정숙	성일운수(주) 대표이사	오만순	덕남운수(주) 대표이사	한성식
세기교통 대표이사	이용성	한라교통(주) 대표이사	한창인	(주)은마교통 대표이사	홍재만
(주)화신교통 대표이사	김기성	평화운수(주) 대표이사	강성지	주영택시(주) 대표이사	강성무
동방운수(주) 대표이사	김태원	대영운수(주) 대표이사	이경희	(주)유일운수 대표이사	송문범
백마교통(주) 대표이사	김영숙	대림교통(주) 대표이사	강성지		송영석
(주)서귀포택시 대표이사	한창인	천일택시운수(주) 대표이사	김정숙	대안택시(주) 대표이사	문태진
(주)대명교통 대표이사	차주홍	(주)남양교통 대표이사	고석구	남원운수(주) 대표이사	오승남
				(주)동성택시운송 대표이사	강호방
				(유)우일교통 대표이사	차주홍
				(유)대산운수 대표이사	강옥자
				칠성교통(주) 대표이사	김현창
				(주)하이제주 대표이사	김영신
				성원택시(주) 대표이사	고양수
				(주)안덕택시 대표이사	김동춘
				우남운수(주) 대표이사	남성규